

사조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조사 현황

-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사조위”)는 ‘24.12.29(일) 09:03경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* 여객기 사고 당일 사고조사단을 구성하고 기체잔해, 엔진, 통신 기록 및 비행기록장치 등에 대한 정보 수집·분석과 현장조사 중이며
 - * (항공기) 제주항공 2216(방콕→무안, HL8088), B737-800 기종
-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항공기 설계국, 제작국인 美 교통안전위원회(NTSB)와 합동조사를 12.31일 부터 수행 중입니다.
- 사고 당일, 사조위는 현장에서 항공사고 원인규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성기록장치(CVR)는 외관상 온전한 상태로, 비행자료기록장치(FDR)는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된 채로 수거하였습니다.
 - CVR은 김포공항에 위치한 자체 시험분석센터에서 자료 인출 후 음성파일로 변환(‘24.1.2)하였고, 녹취록을 작성한(‘25.1.4)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되었으며, 현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
 - 따라서, 사조위의 CVR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NTSB와 협의하여 FDR 미국 운송시 CVR을 함께 운송하여 분석 하기로 하였습니다.
- 국내에서 자료인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FDR과 교차 검증이 필요한 CVR은 美 워싱턴에 위치한 NTSB 분석실에서 사조위 조사관(2명) 입회 하에 ‘25.1.7일부터 11일까지 신속히 자료인출과 분석을 실시하였고,

- 분석결과,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 간의 CVR과 FDR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하였고 앞으로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.

* 미국 현지에는 있는 조사관은 1.13일 오후 귀국 예정

- CVR과 FDR 자료는 사고조사에 중요한 자료이나 사고조사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바,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, 사조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시점, 공청회,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,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| 책임자 | 사무국장 | 김수정 (044-201-5422) |
| | | | 사무관 | 배기후 (044-201-5447) |

